15년 만의 체전 유치… 전남체육 도약의 해 '성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이 지난 10월1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전남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전남도체육회는 2023년 한해를 '건강과 행복 넘치는 전남체육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개최', '생활-전문체육 균형발전', '스포츠 참여 확대', '체육인 복지 재정 확대'등에 주력, 전남체육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다.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전남도체육회는 올 한해 역대 가장 뛰어난 체육 진흥을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비롯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금메달 19개 획득,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 33개 획득을 통한 국위 선양, 생활체육 활성화 등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데 따른 평가다.

전남체육은 지난 10월 2008년 제 89회 전국체전 이후 15년 만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번 전국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7개 시·도, 18개국 3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전남 선수단은 개최지 이점을 살리면서 금 60개, 은 59개, 동 81개 등 총 193개의 메달과 총 4만9466점을 획득하며 종합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다 금메달과 최다 메달 갯수다.

또 전남은 지난해 전국체전 13위에서 4위로 올라서며 성취상 1위를 수상, 전남 체육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남은 8명의 다관왕과 12개의 다연패, 대회신기록 1개를 작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육상 배건율과 송수하, 이은빈(이상 전남체고)이 각각 3관왕에 등극했다. 육상 남일부 포환던지기의 정일우(여수시청)는 9연패를 달성했고, 여일부 해머던지기의 박서진(목포시청)과 우슈 산타 -56㎏의 윤웅진(전남도청)은 각각 5연패를 일궜다.

지난 2월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전에서는 동계 종목 불모지임에도 6개 종목 22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1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8개 등 총 36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득점 330점으로 종합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의 동계체전 사상 역대 최다 메달과 최고 득점이다. 전남은 이 대회에서 5관왕 1명, 4관왕 2명, 3관왕 1명 등 다관왕도 다수 배출했다.

●전남 선수단 국제대회 활약

전남 선수들은 올해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맹활약하며 전남체육의 위상을 알렸다. 전남 선수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청두유니버시아드대회,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종별 세계선수권 등 크고 작은 국제대회에서 33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펜싱 최세빈(전남도청)이 세계선수권 금메달과 펜싱월드컵 금·은메달을, 펜싱 유단우(전남도청)는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드민턴 연서연(화순고)이 2023 네덜란드 주니어오픈 금·은메달, 태국 주니어오픈 금메달을 땄다.

근대5종 서정완(전남도청)은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당구 서서아(전남당구연맹)는 세계여자10볼 금메달을 각각 거머쥐었다. 육상 김은미(여수시청)는 인천하프국제마라톤 금메달을, 육상 김장우(장흥군청)는 아시아육상선수권 동메달을, 육상 배건율(전남체고)이 U20 아시아육상선수권 은메달 3개를 각각 획득했다.

●생활체육 활성화·교류확대

전남도체육회는 올해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 제35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 제18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등을 개최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썼다. 특히 전남도체육대회에서는 족구, 전남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파크골프 등 종목을 확대해 보다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

또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과 전남생활체육대축전에서 전남-경북, 전남-서울 등 180여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 교류를 통한 친목을 다졌다.

각종 전국대회, 도내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회원종목단체 회장기, 전남도체육회장기, 전라남도지사기 등 각종 기관단체장 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도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스포츠로 하나가 된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종합 및 한종목 스포츠클럽 지원, 생활체육동호회리그사업 지원, 대한체육회 스포츠 버스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27개소 확보(전국 1위), 신나는주말체육학교 전국 1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전국 4위, 청소년스포츠 한마당 전국 2위, 청소년스포츠 안전교실 2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체육의 바탕이 되는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집중했다.

●체육인 복지 강화와 소통확대

전남도체육회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체육의 발전과 체육활동 참여 증진에도 노력했다.

각종 국비사업 확보,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관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공개채용 등으로 신뢰 받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도민들의 건강과 선수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도내 우수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남체육인재육성 장학금 운영을 하며 매년 50명 이상 장학수혜를 주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 SNS 운영(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생생한 현장 상황과 각종 결과 및 대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체육회는 2024년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화합 소통실현'을 비전으로 공정, 육성, 화합, 소통을 핵심가치로 설정해 공정한 체육행정 실현, 글로벌 전문체육강화, 화합과 조화로운 생활체육, 스포츠 복지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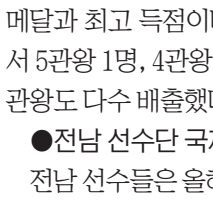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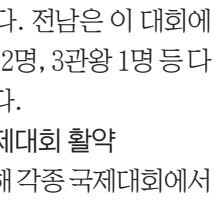
2023 전남도체육회 결산

역대 최다 메달·성취상 1위
각종 국제대회서 33개 메달
생활체육 활성화·복지 강화

광주장애인체육회 박우성 팀장·정철기 지도자 정년퇴임

장애인체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박우성 팀장


정철기 지도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박우성 생활체육팀장과 정철기 볼링전문체육지도자가 정년 퇴임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박우성 생활체육팀장과 정철기 볼링전문체육지도자는 2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박우성 팀장은 장애인 좌식배구 선수 출신으로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고,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 간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했다.

그는 특히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생활체육팀장으로 재직하며 매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 시도평가'에서 광주가 6년 연속 우수시도로 선정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에 힘썼다.

정철기 지도자는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볼링전문체육지도자로 재직하며 광주장애인체육회 볼링 선수로도 활동했다. 그는 장애당사자로서 장애 인권감수성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며 2022년 서영춘(청각), 조미경(지체) 선수가 볼링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날 정년 퇴임식과 함께 2023 광주 장애인체육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화합을 다졌다.

체육대회에는 시·구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종목 가맹단체 실무자 및 선수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빛돌이, 누리비, 수리달이, 반다비 등 4개팀으로 나뉘어 풍선 터트리기 등 6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내년 영입 1호' 정지용·박태준… 기동력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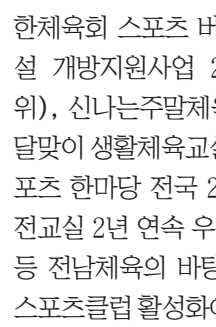
내년 태국 1차 전훈 합류
토마스는 브라질로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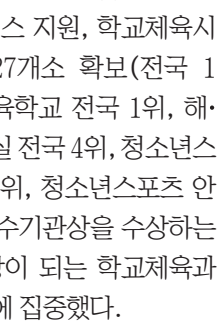
창단 후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 나서는 광주FC가 2024시즌 선수 보강의 문을 열었다. 측면 공격수 정지용과 중앙 미드필더 박태준을 영입하며 더 강해진 기동력을 갖추게 됐다.

복수의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FC가 안산그리너스FC 소속 측면 공격수 정지용과 성남FC 소속 중앙 미드필더 박태준을 영입한다.

현재 이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두 선수는 내년 1월3일 시작하는 태국 치앙마이 1차 전지훈련 일정에 맞춰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정지용은 수원공고-동국대를 거쳐 2019년 강원FC에 입단하며 프로에 입성했다.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돌파와 기회 창출을 시도하는 등 측면에서 파괴력을 자랑하는 자원이다.


정지용


박태준

정지용은 세 시즌 간 강원 유니폼을 입은 뒤 2022년 화성FC에서 임대 생활을 했고, 2023년 안산그리너스FC로 이적하는 등 프로 통산 44경기에서 1득점 4도움을 기록했다. K3리그에서는 25경기에 출장해 7득점 1도움을 올리는 등 맹활약했고, 2022시즌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을 수상하며 프로 재입성에 성공했다.

박태준은 풍생중-풍생고를 거쳐 2018년 고졸 신인으로 성남FC에 입단한 로컬 보이다.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자원으로 성실함을 바탕으로 폭넓은 활동량을 지녔다.

박태준은 네 시즌 간 성남 유니폼을 입은 뒤 2021년 FC안양, 2022년 서울이랜드FC에 임대를 다녀온 후 다시 성남에서 한 시즌을 보냈고 프로 통산 106경기에 나서 4득점 9도움을 기록했다.

또 정정용 감독의 선택을 받아 연령별 대표팀에 승선하며 2018 AFC U-19 챔피언십과 2019 FIFA U-20 월드컵에 나섰다. 국가대표 경력은 친선경기 포함 10경기 출장.

한편 광주FC는 외국인 선수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시즌 팀 공격을 책임졌던 토마스 자구아리비 베디넬리는 개인 사정으로 전 소속 팀인 브라질 캄페오나투 브라질레이루 세리 B의 샤페코엔시로 복귀했다.

한규빈 기자